



우리아이 천식 어떻게 하나? 4

김 용 서

자연으로 심신을 다스리는
전곡한의원 대표원장

유형별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 2



당신의 어린이는 어떤 유형?



5개의 “기본형” 이란 ?

한방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기 혈 수” 의 상태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한방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아천식의 경우는 병의 “근본” 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고, “기의 병” 이든 “수의 병” “태양병” 이라 말한 견해만으로는 완전히 파악 할 수 없는 타입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천식(천식성 기관지염을 포함)의 어린이를 5가지의 “기본타입” 과 2가지의 “특수 타입” 으로



나누고, 각각의 타입에 잘 듣는 한방치료를 소개 하고 저 합니다. 기본타입은 (1)허약체질타입 (2)자율신경체질타입 (3)재채기·콧물타입 (4)감기·편도선염타입 (5)발작이 눈에 띄는 타입 의 5가지타입 입니다. 또, “특수타입은 (1)아토피성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는 타입 (2)서양약의 부작용의 영향이 강한타입 의 2가지타입 입니다.



어린이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5가지의 기본타입과 2가지의 특수타입에는 전에 설명했던 “기의 병” 이나 “수의 병” 의 타입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방법의 견해로 소아를 체크한다면 한방치료의 선택이 보다 정확하게 됩니다. 각각의 타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방치료는 어린이의 체력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앞에서 몇 번이나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외견상으로는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체력이 약한”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잘 고려해 주십시오. 만약,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체력이 없는(허증) 어린이에 맞도록 한방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역시, 소아천식이나 천식성 기관지염 등의 병은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한방요법을 행할 경우도 우선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에게 정확히 진찰을 받고, 한의사와 잘 상담하면서 치료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등증 이상의 어린이는 반드시 한의사의 지시를 근거로 치료를 진행해 주십시오.)

(1) 허약 체질형

이 타입은, 체질적으로 위장의 기능이 약하고 소식으로 여위어있고 체력이 없는 것이 특징 입니다. 장의 기능도 나쁘고 매일의 배변이 흐트러지기 쉽고 깡마르게 여윈 어린이도 보입니다.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도 많고 외견상으로도 대개는 보기만 해도 체력이 없는 것 같다” 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타입의 어린이는 매우 단 음식물을 욕심냅니다. 이것은 단맛의 식품 이라면 위장의 기능이 약해서 충분한 소화를 못하므로 당분(에너지)을 공급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런 어린이가 성인이 되면 “술꾼” 이 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술꾼도 식사 보다는 “술에서 편하게 에너지를 섭취 한다” 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또, 위장의 기능이 약





한방과 건강

하므로 서양약은 물론 한방약에서도 강한 타입의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 주의하지 않으면 즉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허약체질 타입은 앞에서의 한방의 견해로 파악한다면 “기의 병” 중의 “기가 부족한 타입(기허)” 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가 정체되어 있는 타입(기울)” 이나 가벼운 “수의 병(수독)” 과 “기의 병” 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케이스도 보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이 타입은, 우선,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으로, 좋은 한약과 매일의 생활양생을 정확히 계속하여 조금씩 체력을 높여가면 천식도 점차 좋게 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잘 듣는 한방약은 ?

천식증상 이외에 “자주 배가 아프다, 피로해지기 쉽다, 야뇨증이 있다, 신경이 과민하다” 등의 증상이 보일 때는 소견중탕이 잘 들립니다. 이 경우, 배꼽의 양측을 따라 통하는 가늘고 긴 근육(복직근)이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소견중탕이 지향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기력이 없다. 전신이 나른하다, 식욕이 없다, 상복부의 불쾌감이 있다, 토하든지 설사하기 쉽다,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나는” 등의 증상이 보이면 사군자탕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인삼탕이나 천사군자탕, 육군자탕, 보중익기탕 등의 한방약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2) 자율신경 실조형

이 타입은 소아천식이나 천식성 기관지염 가운데 가장 잘 보여 지는 것으로 자율신경의 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것도 특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력도 약하고, 대수롭지 않은 계기로 자율신경의 기능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배가 아프다, 즉시 진장한다, 정서 불안정으로 초조하기 쉽다, 설사나 변비 경향이 있다, 잠들거나 잠에서 깨기가 힘들다” 등의 증상이 잘 보여 집니다. 유아의 경우는 소위 “야제(밤에 우는 것), 경기” 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아기 이후는 대수롭지 않은 증상을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것이 많고, 어머니가 그것에 과잉 반응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 타입은 “아버지가 바빠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경향으로, 어머니가 어린이만을 상대해서 무심결에 그만 과보호 한다” 라는 가정환경의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정신적인 요소가 천식의 증상에 여



러 가지 영향을 미쳐 소위 심신증”적인 케이스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방의 견해에서 이 타입을 보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기의 흐름이 나쁘다(기울)” 이라든지 “기가 역류하다(기의 상충)” 등의 “기의 병” 이 많은 적든 있으므로 그런 이상뿐 만 아니라, 이외에 체질 다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타입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한방약은 ?

이 타입은 가슴아래의 옆구리 같은 곳이 땡긴다 든지, 손으로 누르면 아프다든지 하는 케이스와 이런 증상이 없는 케이스로 크게 나뉩니다. 이중상이 있으면 흉협이 약간 답답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흉협고만) 이것은 한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증상으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방약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이 “흉협의 답답한 감” 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자율신경이 긴장해 있으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 영향이 적어서 체질의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천식의 어린이는 발작의 영향으로 많은 적든 가슴 같은 곳의 근육이 굳어져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것과 착오 없도록 신중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협증상(흉협고만)이 있을 때는 역시 체력이 없는 (허중 중간증) 어린이라면 시호계기탕등이 효과적입니다. 또,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중간 실증) 어린이라면 소시호탕 등이 잘 듣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방약이 있습니다 만,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한편, 중간으로(중간증) 초조해지기 쉽다면, 역간산이 잘 듣습니다.

(3) 재채기 콧물형

이 타입은 초등학교 3~4학년의 어린이에서도 잘 보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뉩니다.

(1) 재채기나 마른기침이 눈에 띄는 경우

하나는 재채기나 가래를 함께 하지 않는 “마른기침” 이 특히 눈에 띄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른기침이 발작처럼 밀어 올려 저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심하게 기침을 계속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가래는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만 점성이 강한 소량의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소아천식에는 그다지 많지 않고, 어





한방과 건강

느 쪽 이라고 말하면 천식성 기관지염이나 보통의 기관지염, 상기도염(인후염, 후두염, 백일해 등) 등에서 잘 보입니다. 한방의 견해로 이 타입을 본다면 대부분이 “기가 역류하는 타입(기의 상충)” 입니다.

(2) 특히 콧물이 눈에 띄는 경우

다른 하나는 특히 콧물이 눈에 띄는 케이스 입니다. 추위를 잘 타, 수족이 차갑게 되기 쉬운 타입이 많고, 즉시 감기에 걸린다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을 함께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소위, “물살 찢 타입” 이 많습디다만, 그 가운데에는 마른형의 어린이도 보입니다. 어느 쪽의 경우도, 한방의 견해로 보면, 전형적인 “수의 병(수독)”으로 콧물 뿐 만 아니라, “수의 병”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증상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아천식의 가운데는 특히 많은 편은 아니디다만, (1)의 “허약체질 타입” 과 같은 정도(10~20%정도)로 보입니다.



잘 듣는 한방약은

“재채기나 마른기침이 눈에 띄는 타입”에서는 그다지 체력이 없는 타입이 많고(허증 중간증), 대체로는 “신경질적으로 증상을 심하게 염려 한다, 역상하기 쉽다, 목소리가 쉰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등의 증상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는 맥문동탕이 효과적 입니다. 맥문동탕에는 “맥문동, 반하, 경미, 대추, 인삼, 감초” 의 6종류의 생약이 배합되어져 있어 “기”의 흐름을 조절해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듯한 기침을 능숙하게 치료합니다. 한편, “특히 콧물이 눈에 띄는 케이스”에는 체력이 중간정도(중간증)의 어린이라면 소청룡탕, 그다지 체력이 없는 타입(허증 중간증)이라면 영감강미신하인탕이 효과적입니다.

(4) 기침 편도선염형

이 타입은 쉽게 감기에 걸립디다만, 특히 몸이 약해서, 바로 인후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인두염 후두염), 편도선을 붓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이나 편도선의 염증에 동반해서 “쌩쌩 휴휴”와 같은 천명증상이 나타나지만, 천식발작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 일어나도 대체로는 가벼운 증상입니다. 목이나 편도선을 붓게 해서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붙어 있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한기 등의 악영향을 받기 쉽고 밖에서 활발히 놀고온 후에 “쌩쌩”하기 시작하는 것



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의 영향은 그다지 없습니다. 3세 이하에서 “천식성 기관지염”이라 진단된 어린이에는 이타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세 이상이 되면, 이 타입도 “소아천식”이라고 진단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잘 듣는 한방약은

이 경우는 감기에 걸렸다면, 가능한 한, 1~2일 이내의 초기의 단계에 빨리 한방약을 먹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 체력이 강한 (중간증 실증) 어린이로 오한 발열 두통 등이 있어 “땀이 나지 않음”과 같으면, 마황탕이나 갈근탕을 2~3일간만 사용하면 좋겠죠. 또, 체력이 그다지 없는 타입(중간 허증)으로 역시 오한 발열 두통 등이 있어 땀이 거의 나지 않고 피부가 뭔가 가려운 것 같을 때는 역시 2~3일간만 계마각반탕을 사용합니다. 그 외, 감기의 초기에 한방약을 먹는 것을 잊어 3~4일 지났을 때는 체력이 강한(중간증 실증)어린이라면 소시호탕, 체력이 약하면 시호계지탕(체력이 극단적으로 없는 타입이라면 시호계지건강탕)을 사용합니다.

(5) 발작이 눈에 띄는 타입

이 타입은 지금까지에 취급해온 여러 가지 타입 가운데에서, 천식발작의 증상이 상당히 눈에 띄는 케이스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허약체질타입 (2)자율신경실조타입 (3)재채기 콧물타입 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의 감기 편도선염타입에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작의 증상이 어느 정도라면 이 타입으로 간주하면 좋은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잘 보이는 것은 서양약에 의한 치료가 불충분하여, 천식이 목적인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어린이는 운동이나 담배연기 피로 등 여러 가지 일이 원인이 되어 즉시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작의 횟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천식의 “중증도”에서 보면, 중등증과 중증의 일부가 중심이됩니다. 경증에서도 어린이의 고통감이 특히 강하다든지, 발작을 일으키고 치료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이 타입에 포함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고통감이 특히 강한가? 어떤가?”가 이 타입을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중증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 타입으로 간주하여 “한방요법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행하여 목적인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서양약에 의한 치료를 우선하고, 잠깐 사이에 한방요법을 보조적으로





한방과 건강

행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발작이 눈에 띄는 타입”은 소아천식 전체에서 보면, 특히 많은 경향은 아닙니다.



잘 듣는 한방약은

체력이 강하고(중간증 실증), 자연히 땀이 나오고 갈증이 있는 경우는 오호탕을 어느 정도 계속 복용하는 방법과 발작할 때마다 마행감석탕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1)~(3)타입별 한방약으로 선택하여 계속 복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에 관하여서는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소아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어느 쪽 인가의 방법을 선택하여 가면 좋겠지요. 역시 체력이 강한 어린이로 기분이 침울한 경향이 있다든지, 감정이 불안정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신비탕을 사용합니다. 그 외, 체력이 중간정도 (중간증)이라면, 소청룡탕과 화개산(華蓋散), 체력이 없다면(허증) 영감강미신하인탕 등을 발작할 때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소청룡탕이나 영감강미신하인탕은 “발작을 억제하는 작용”과 “심신의 상태를 차분히 조절하는 작용”을 포함해서 갖고 있으므로 “콧물 타입”의 경우는 이것들의 한방약을 계속해 복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6) 두 가지 특수한 타입



다른 한방요법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다

소아천식의 어린이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부스럼이 생기고, 소위 “상어피부 건조피부” 타입의 어린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보이는 건조한 피부와 같은 것으로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이 약해서 습진이나 피부염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건조 피부” 타입의 어린이로 본격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을 수반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소개한 “(1)~(5)의 기본타입”과는 다른 한방요법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의 강한 서양약을 계속해서 사용해온 영향으로 몸의 상태가 상당히 저하된 어린이에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앞에서의 “기본타입”과는 조금 다른 한방요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들 2가지의 “특수타입”의 한방요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수한 형 (1)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케이스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법은 ?

서양의학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도 “알레르기병의 한 종류”로 간주하고 있고, 소아천식에서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것 같은 요소를 (아토피체질로 건조한 피부) 가진 어린이가 상당히 보입니다. 다만, 실제에는 예를 들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도 경증의 어린이가 많고, 본격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을 수반하는 타입은 “소아천식이 없는 보통의 어린이보다 약간 많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경우, 서양의학에서는 피부의 염증을 강력히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제의 연고와 피부의 습기를 보존하는 연고(요소연고나 바세린 등의 보습외용제)를 바르는 것을 계속하면서 알레르겐 대책등도 행하며, 일시적인 증상을 억제해서 콘트롤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치료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근본”부터 치료하는 것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연고의 부작용이 나타나 치료가 한층 어려워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한방으로도 낫는데 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편, 한방요법의 경우도 아토피성 피부염은 결코 온순한 병은 아니고 소아천식의 한방요법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츰차츰 치료가 진행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치료되는 타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치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방요법이라면 환자의 체질을 개선해서 강화해 아토피성 피부염을 근본부터 치료해 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서양약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회복시켜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역시, 한방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법으로 생각됩니다.



한방과 건강



소아 천식의 치료를 우선한다.

한방에서는 옛 부터 “몸의 표면의 증상은 몸속의 이상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왔습니다. 이 경우 “몸의 표면을 먼저 치료해 버리면 몸 안의 병의 근본이 체내에 가두어져, 병을 악화시켜 버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천식에 본격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는 것 과 같은 경우도 우선 몸 안의 소아천식의 “병의 근원” 을 먼저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의 치료의 진행방법으로서는 우선, 앞에서의 “소아천식의 기본타입” 의 어느 것에 적합한가를 보고 어린이에 꼭 맞는 한방약을 선택하여 복용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그사이에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는, 서양의학의 치료로 콘트롤 해가고 가능한 한 빨리 소아천식을 치료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서양의학의 아토피치료에서는 가능하면 스테로이드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콘트롤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스테로이드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약의 바르는 약을 사용해도 좋다)



천신의 치료로 아토피도 개선

소아천식의 타입이 (1)의 “허약체질타입” 의 어린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견중탕이나 사군자탕 보중익기탕 등을 사용합니다. 또, (2)의 “자율신경실조 타입” 이라면 시호계지탕이나 소시호탕, 시호계지건강탕, 역간산 등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이들의 한방약은 아토피성 피부염의 한방요법에도 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소아천식의 치료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염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벼운 아토피라면 치료 되는 것도 많다) 어느 쪽이라 해도 소아천식의 치료에 목표가 따라가도 아토피성 피부염의 개선이 아직도 불충분 할 때에는 다음에 본격적인 아토피의 한방요법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의 주의가 특히 중요하므로 소아천식의 치료를 진행하는 사이에도 그 점에 충분히 주의 해주십시오.



특수한 형 (2)



양약의 부작용이 강한 형



베타 자극제로 기관지가 과민하게 된다

소아천식으로 한방의 진료를 받으러오는 환자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강한 서양약의 영향으로 몸의 상태가 상당히 저하되어 원기가 없고 안색도 나쁜 어린이가 상당히 보입니다. 현재, 서양의학 소아천식의 치료에서는 주로 기관지 확장제(베타 자극제, 기산친제)와 항알레르기제, 항염증제(스테로이드제)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베타자극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서 “손의 떨림, 부정맥, 동계, 흥분.(불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타자극제는 사용하면 점차 약의 효과가 나쁘게 되어가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에 부담을 끼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으로 사망하는 위험성도 나타납니다. 베타자극제를 사용과다하면 기관지가 과민하게 되어 발작이 일어나기 쉽게 되는 경우도 지적되어왔습니다. 기관지가 과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천식을 치료하는 약으로 기관지가 점점 더 과민하게 된다는 것은 알곳은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흥분 상태를 초래한다

한편, 기산친제는 “구토, 식욕부진, 두통, 흥분(불면)”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약도 사용방법이 까다롭고 조금 많이 사용하면 즉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기산친제 뿐만 아니라 베타자극제도 포함해서 기관지 확장제는 사용한 후에 묘한 기분이 상승하여 “하이” 하든지 흥분하여 잠을 못 자게 되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의 상태가 저하되어 발작을 일으키기 쉽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날 우려도 있습니다. 항알레르기제의 경우는 부작용으로서 “인후의 자극감, 과민증, 졸음, 나른함, 식욕저하”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킨 케이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는 소아



한방과 건강

천식에서는 주로 중증의 어린이에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그다지 중증이 아닌 케이스에도, 스테로이드제가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획기적인 약이지만

스테로이드제라는 것은 강력히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진 획기적인 약으로 이약이 만들어진 것에 의해 이전에는 치료법이 없었던 교원병 등의 난치병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의 천식도 스테로이드제에 의해 이전보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스테로이드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천식의 경우는 스테로이드제를 주로 흡입요법으로 하기 때문에 심한 부작용의 위험은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스테로이드제를 얼굴에 바르지 않으면 괜찮음” 이라 말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까닭에 강렬한 부작용이 나타나 몹시 난감해져서 한방전문의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환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천식의 스테로이드요법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든 간에, 소아천식의 경우에는 서양의학의 과다사용이나 부작용의 영향으로 몸의 상태가 흐트러진 어린이가 많습지만, 한방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를 “병이 무너진 상태(괴병)” 이라고 인식합니다. “병이 무너진 상태(괴병)”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의 본래의 모습이 약의 악영향으로 뒤틀려 구부러져 버린 것” 으로 병을 변화시켜 약화시켜서 몸의 상태를 흐트러트려 버립니다. 이상태가 되면 약에 대한 반응성이 심하게 나빠진다는지, 예를 들어 좋은 약을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소아천식에서도 같은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 되어있는 어린이는 본래라면 잘 듣던 한방약을 사용하여도 효과가 나빠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때는, 소아천식 바로 그것의 치료보다도, “약의 영향으로 ‘병이 무너짐’ 으로 흐트러진 몸의 상태” 를 우선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해서 그것을 위한 특별한 한방약을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한방약으로 몸의 상태를 조절한다

이 경우 베타자극제나 기산친제 등의 영향으로 심신이 병적으로 흥분하여 불면증기 미라든지 “불안감이나 식욕저하, 수족의 화끈거림, 땀은 났, 전신의 나른함” 등을 함께 하는 어린이에는 죽여온담탕이 효과적입니다. 역시, 베타자극제의 부작용으로 부정맥이나 동계, 숨참 등이 눈에 띄어 “피부의 건조나 구갈 변비 등”을 함께하는 어린이는 구감초탕이 좋겠지요. 그 외 몸의 상태의 저하가 눈에 띄고 식욕이 없어 안색이 나쁘고, “부정맥, 동계나 숨참 거친피부 전신의 나른함 등”이 보이는 경우는 인삼양영탕, 또, “심한 피로감 기력감퇴, 거친피부, 체중의 저하 등”이 보일 때는 십전대보탕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케이스는 모두 “‘병이 무너진’ 악화된 상태(괴병)”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는 체력이 약해져있으므로 예를 들어, 다소 체력이 있는 듯해 보여도 부드러운 타입의 한방약이 아니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한방약은 “어떤 것이 체력이 없는 어린이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